

# “풍부한 해양자원 살려 사람 몰리는 ‘활력 여수’ 만들 것”

##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주철현 여수시장

주철현(55) 여수시장은 검사장 출신 최초의 기초단체장이란 기록을 세웠다. 광주 지검장을 마지막으로 30여 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으면서 서울지검 특수1부장, 대검 강력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 배경에는 1997년 대선 당시 대검찰청 유일의 호남출신 검사로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 정권교체에 기여한 점이 고려됐다. 그는 호주제 폐지법안 발의, 서민을 위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 도입, 성폭력법 전자발찌 최초 부작, 검찰 시민위원회 구성 등 시대적 이슈가 됐던 각종 법안들을 심사시키기도 했다. 집무실에서 만난 주 시장은 검사 출신이 주는 ‘딱딱하다’는 일반적인 이미지보다 ‘의지가 강하다’는 인상을 풍겼다. 다부진 체격과 말을 하지 않을 때 보이는 굳게 다문 입술은 30여 년의 직업에 대한 선입견과 더해져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여수시 첫 정례회 초대 시민들에게 큰 절을 한 파격에서 알 수 있듯이 소통에 대한 열망은 강한 인상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민 여러분이 참 주인이 되는 새정치를 꼭 실현하겠다. 사심을 버리고 포용과 대성의 정신으로 공평무사한 투명행정을 펼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시장 직통의 SNS 신문고를 설치하고, 시민 공무원 평가제·시민 위원회제도를 도입해 시민 여러분이 주인으로 행사하고 제대로 대접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지역 대소시는 협력과 조정의 방법으로 결정되고, 이행되도록 하겠다. 시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면서 참여와 소통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여수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수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쇠퇴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꼬집어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여수만의 산업이 절실하다고 본다.

여수 미래의 답은 해양에 있다고 생각한다. 관광이나 산업 모두 환경적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수



**주철현 시장 프로필** ▲1959년 3월 12일(만 55세) 여수 출생 ▲여수고·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5기) ▲법무부 검찰기획관 ▲광주지방검찰청 지검장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 ▲법무법인 태원 고문변호사

주는 여수로 변화시키겠다.

-해양산단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있나.  
▲현재 여수지역의 조선소들은 대부분이 도심 연안이나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소의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해양산단 조성이다. 해양산단은 해양을 기반으로 한 관광과 레저, 수산 관련 연구·가공, 조선 등을 총망라한 산업단지다. 앞으로 여수경제의 한 축이었던 수산업을 대신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해양과 수산관련 산업을 집중화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선박검사 위주의 수리조선소를 유치하고 도심 주변에 산재한 영세 조선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집단화하면 환경문제와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절제된 지역경제를 살려낼 복안은 있는가.  
▲여수경제의 동력은 기업과 여수 특산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람도 중요한

현행 90억원인 교육경비 보조금을 150억원까지 늘려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은 더욱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한편, 공부보다는 다른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들과 섬 지역 학생들의 진학에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복지정책의 골자는 무엇인가.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공평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방침이지만 특히 어르신과 여성들이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일자리를 갖고 싶은 어르신과 여성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축복이 되도록 하겠다.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 돌봄 계층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에서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람과 복지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겠다.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산업 현장의 근로자,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가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복지정책의 한 축이다. 석유화학 산업과 해양 관련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며 피해발생시 보상을 위한 지원체계도

## 국제해양비엔날레 개최하고 해양산단 조성 테마별 콘텐츠 개발 국제해양관광 중심지로

-검사장 출신으로는 기초단체장이 처음인 거 같은데.  
▲홍준표 경남지사 등 검사장 출신 광역단체장이나 검사출신 기초단체장은 몇 명이 있었지만 검사장 출신으로 기초단체 시장·군수는 내가 처음인 것 같다. 고향을 떠나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늘 ‘고향에 보답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싶었다. 그 굳은 결심이 나를 여수로 돌려세워 30만 시민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갖게 한 것 같다. 검사장하면 ‘권위주의적이고 군림하려 한다’는 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것은 편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4년 임기 동안 보여주겠다.

-시민들에게 큰 절을 한 것이나 시정 최우선 방향을 소통으로 정한 것도 그런 맥락인가.  
▲그렇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중심의 새 여수를 건설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미에서 시민들과의 첫 만남에서 큰절을 했다. 이것이 단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임기내 몸으로 보여줄 생각이다. 시정 운영 방향의 제1 목표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소통 여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시민 여러분이 시장이고 시

리조선소 유치, 수산과 해양관련 산업을 집단화시킨 해양산단을 조성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으로 ‘여수 국제 해양비엔날레’를 개최할 생각이다.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으로 여수 국제 해양비엔날레 개최를 제시했는데.  
▲여수 세계박람회 폐막되고 2년이나 지났는데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그 방향조차 정하지 못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

많은 시민들은 박람회가 끝나면 여수가 그 어느 도시보다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컸을텐데 박람회 사후활용이 지지부진 해지면서 인근 상가는 물론이고 원도심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제2의 세계박람회라 할 수 있는 여수 국제 해양비엔날레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선투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선결과제가 해결되면 이곳에 크루즈 시설과 거점형 국제 마린나 항만시설을 갖추고 해양과 관련된 문화·예술·스포츠 등 각종 국제행사도 함께 열 생각이다.

또 관광전문가를 특채해 여수의 관광코

스를 재설계하고 중국 등 해외 관광객과 수취여행단을 많이 유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원도심 전체가 활성화되고 사람이 몰려드는 여수, 활력이 넘치는 여수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해양비엔날레는 분명, 여수관광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해양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해양관광을 더욱 활성화 시킬 구상은.  
▲우리 여수는 호국충절의 고장이자 천혜의 해양자원과 기후를 갖춘 고장이다.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SOC와 인프라도 확충했고 국내외 인지도도 높아졌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

지 않는 명품 힐링 도시,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를 표방해 내세운 슬로건이 ‘뷰티풀 씨(Beautiful sea) 여수’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를 재생하고 해변카페와 예술의 거리, 컬러 빌리지 등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생각이다. 세계박람회장은 외국인 관광객과 수취여행단이 대거 모이는데는 못모이더라도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

거문도·백도·금오도는 생태관광단지로, 경도·소호동은 해양레포츠·마리나 단지로, 여자만과 화양지역은 휴양·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 시장 직통 SNS 신문고 설치 시민과 소통 강화 일자리 늘리고 어르신·여성 행복지수 높일 것

요수 중 하나라고 본다.

그래서 해양산단 조성이나 여수 국가산단과의 상생과는 별도로 많은 기업들이 여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으로 윈윈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싸고 좋은 공공용지 제공에서부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 특산물 판로를 위해 로컬푸드점을 거점별로 확대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재래시장도 대형마트 운영기법을 적용하고 대형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궁극적으로는 문화관광형 재래시장으로 탈바꿈시킬 생각이다.

-교육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약속했다.  
▲경쟁력이 떨어진 여수교육을 위해 산단 입주기업의 이름을 내건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어 이를 명문고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단과 지역에 필요한 관련 학과도 대학에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 해양과학고와 현행 화학분야 특성화 고교인 여천 석유화학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활성화시켜 재학생 전원이 장학금을 받고 취업까지 보장받는 명문학교로 만들겠다.

강추도록 하겠다.

-조선 시장으로서 4년 동안 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선 공무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여수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공무원들이 정말 휴일도 없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시장의 권한을 팀 단위로 최대한 이양할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소신껏 일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사 또한 이런 업무실적을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수를 대폭 강화해 서비스마인드와 주인 의식을 높일 생각이다. 그러면 공직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비리는 예방될 수 있다. 비리나 부패는 주인 의식이나 자긍심이 없을 때만 생겨나는 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행정평가제, 개방형 감사관제 등을 도입하고 내부 결재를 강화하는 등으로 비리 예방에도 노력하겠다.

/정필수기자 buny@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칠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예향’은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